



으랏차차...

투포환서 바벨로... 세계를 든다

스포츠 포커스

한국역도 미래 짊어질 여고생力士 광주체고 이애라

■이애라는 누구?

▲생년월일 = 1990년 ▲신체조건 = 163cm 76kg ▲출신학교 = 용두초 등-양산중-광주체고 ▲우승경력 = 2004년 제33회 소년체전 63kg급 3관왕, 2004년 제6회 전국중학부역도경기대회 75kg급 3관왕, 2005년 제86회 전국체육대회 75kg급 3관왕(대회신기록, 학생신기록), 2006년 제17회 전국중학여자역도경기대회 75kg급 3관왕(학생신기록 3개)

새벽 6시. 항상 반복되는 아침이지만 자꾸만 감기는 눈과 몽롱한 의식은 아직 17세 소녀에게는 너무 이르거나 하다. 하지만 잠과의 싸움은 이어지지 않는다. 운동을 즐기는 본능이 금새 나태해진 마음을 저쪽으로 밀어내고 운동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하체단련과 지구력 향상을 위해 400m트랙을 걷다가 뛰면 몽롱했던 의식이 맑아지며 이마에선 어느새 땀방울이 맺힌다.

지난 11일 광주체육고등학교에서 만난 그에게 운동하기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운동이 너무 재미있어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얼굴엔 아직 소녀티가 가지 않은 163cm, 76kg의 다부진(?)체구의 이 소녀는 한국 역도의 미래를 짊어질 여고생 역사(力士) 이애라(17·광주체고 2)다.

약간은 내성적이고 다소곳한 말투가 천상 여자다. 체구만 크지 않았다면 누구봐도 신력을 지닌 역사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이 선수는 조용한 17세 소녀 그대보다.

그런 소녀가 광주 양산중학교 1학년때 바벨을 처음 잡은 후 현재까지 국내 최고의 자리를 꼭 지키고 있다.

이 선수는 용두초등학교 4학년때 160cm 68kg의 체구 덕분에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육상 포환던지기엔 입문했다. 그리고 2년 후 6학년때 제 30회 부산소년체전에서 초등부 한국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 육상 투포환 꿈나무로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선수는 초등학교 졸업 무렵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반 중학교인 양정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공부에 전념하고 싶었던 이 선수. 그렇지만 운동경력과 운동으로 다져진 체구를 본 체육선생님이 역도를 권유했다.

말만 들은 집안에서 투포환도 그랬지만 여자 역도를 한다는 것에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하지만 이 선수는 자신의 가야할 길이 운동임을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바벨을 잡게 된다.

이 선수는 "그때 몇개월 쉬었던 운동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꼭 역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운동을 했을 것이라"며 "부모님을 설득해 바벨을 잡았는데 운동한다는 자체

만으로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역도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인 중학교 2학년때 이 선수는 제41회 전국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 및 제14회 전국중학여자역도대회 여중부 +75kg급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3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로 선정, 천재성을 발휘한다. 이날 이 선수가 기록한 인상 77.5kg, 용상 102.5kg은 종전기록을 나란히 2.5kg씩 경신한 것이며 합계 180kg은 무려 7.75kg이나 더 들어올린 것이다.

이때부터 이 선수는 실재없는 신기록행진을 벌리며 한국 여자 역도계의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잡았다. 이 선수는 양정중학교 고교부 코치(현광주은행 감독)를 통해

운동을 즐기면서 한다.

지난해 태극마크를 달고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후 이 선수는 무릎부상을 당했다. 이 선수는 "태극마크를 받았을 때 기쁨은 컸지만 태릉선수촌의 짜여진 운동스케줄에 적응하지 못해 부상을 당해 스스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며 "운동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내년에는 실업선수들의 벽마저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벨을 들었다 오른손 바닥이 찢어져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이 선수는 아파하거나 피를 피우지 않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재미있는 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선수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한다. 이 선수는 고2년생 담지 않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확실하다. 졸업 후 실업팀을 거쳐 은퇴한 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세워왔다.

최기영 광주체고 역도감독은 "이미 학생 기록을 넘긴 애라가 올 해 말쯤이나 내년에는 한국신기록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운동을 즐길 줄 아는 애라가 후사하지 않고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세계의 벽도 넘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한박자 쉬고...



힘 키우며...



황의열(맨 왼쪽)코치와 최경수 교장(왼쪽에서 세번째), 최기영 감독(오른쪽)이 이애라 선수의 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득신청 및 배급시호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에스콧치킨중점점 중점점 사무소 맞은편 대표 남정복 ☎(062)266-3008	암즈너코리아 농성동 삼복화관 건너편 대표 임우규 ☎(062)362-3252	하나공인중개사 지산동 김철원길 아래쪽삼거리 대표 임우규 ☎(062)222-4984	로알와이서츠 그랜드호텔 건너편 삼육대학병원 대표 임우규 ☎(062)234-8400	광주야동종합합인매점 우산동 인보호텔 사거리부근 대표 임우규 ☎(062)512-1054	장강중화요리 대인동 대인시장앞 대표 임우규 ☎(062)527-6740	GM 금융 백운동 동아아파트 2층 대표 남정복 ☎(062)653-3034	
(주)청담D&C 차평동 세정아울렛 옆 대표 남정복 ☎(062)382-4884	무향촌 동구 문림동 중점점 사무소 맞은편 대표 남정복 ☎(062)227-3352	한마음회관 신수동 호남시장앞 대표 송하신 ☎(062)234-8125	와우경학학원 전일빌딩 비로연 대표 송하신 ☎(062)227-0112	등진한약국 우산동 서림시장 건너편 광주은행 옆 대표 송하신 ☎(062)223-0001	한국댄스스포츠스쿨 광주역과 현대호텔 사이 레오포드3층 대표 송하신 ☎(062)526-3950	한·베 결혼정보사 말미암시장 건너편 광주은행 옆 3층 대표 송하신 ☎(062)261-2282		
전통옹구골 고을동 옥리리 고을동 13호 앞골목 대표 임영준·송은자 ☎(061)836-1728	돌가팔죽전문점 화순을 훈리 교육청 옆 대표 이강봉 ☎(061)375-8889	이모네식당 풍향동 고대초교 정문 건너편 대표 남정복 ☎(062)521-3327	오아시스재활의학과의원 문림동 동신아파트 대표 박병권 ☎(062)222-8575	19 후회전문점 주월동 배운로터리 국제호텔 옆 대표 이현욱 ☎(062)653-8289	장수숯불가든 월계동 비전교회 앞 대표 송하신 ☎(062)871-5853	라피에르피자점 연동 현대아파트 건너편 연동아파트 대표 이윤철 ☎(062)572-1264	고급화랑 중동 예술의전당 앞 골목 대표 임효택 ☎(062)232-9173	남가네술발길비 영주동 동아아파트 1층 대표 남정복 ☎(062)383-2844
진경아헤어갤러리 고을동 서문리 229-15번지 대표 진경아 ☎(061)835-5674	한국가구 임동동거리에서 한림빌딩 옆 대표 남정복 ☎(010)2616-0268	동부전기공사 풍향동 교육대학교 건너편 대표 안종욱 ☎(010)7442-3988	동갈비바베큐 월곡동 월곡파출소 옆 먹지골목 대표 남정복 ☎(062)951-0111	마트앤마트세탁합인점 풍성동 풍성마을로 건너편 마트앤마트 대표 남정복 ☎(062)651-5160	동지공인중개사사무소 안산동 마지개빌딩 건너편 대표 김현식 ☎(062)576-4080	성실공인중개사 북구 일곡동 청솔1차선가네 대표 신길섭 ☎(062)575-4008	명경원 북동 성명동문 앞 대표 김성근 ☎(062)521-0120	건국동재합인회 안산동 동아아파트 1층 대표 남정복 ☎(062)573-9192
김발족욕김발랜드 화순을 임실리 화순경찰서 앞 대표 남정복 ☎(061)375-3891	세경실사출력소 풍향동 교육대 정문 옆 대표 정영석 ☎(062)514-1088	오아리돌출발 두암동 두암타운사거리 대표 이호재 ☎(062)267-8500	현대반점(중식) 주월동 무진상가 나들길 대표 남정복 ☎(062)434-4525	미카엘피아노학원 양정동 세정아울렛 건너편 대표 남정복 ☎(062)266-7585	윤피파과 비비기과 안산동 남광빌딩 4층 대표 서우석 ☎(062)571-6800	한빛결혼상담소 말미암시장 건너편 연동아파트 대표 이태수 ☎(016)400-2873	자바카페 화순을 제갈동길과 화순화정사 사이 대표 이태수 ☎(062)234-9789	청사초롱 대인동 동계천우정 건너편 대표 최수진 ☎(062)227-8780
포스원 화순을 임실리 대정빌딩 1층 사무실 대표 남정복 ☎(061)375-8770	산야초 두암동 DCC에서 두암타운정문 대표 안선영 ☎(062)251-5392	오리랑갈비탕 농성동 서구청근거리너 골목 대표 남정복 ☎(062)362-1749	화라매일식점 주월동 보현회관 옆 대표 남정복 ☎(062)671-4424	일식다선미 오차동 양지PT 옆 대표 오항길 ☎(062)263-9795	대도축산유류 안산동 비미트 건너편 대표 서우석 ☎(062)575-1227	광주산업비밀떡화점 계림동 광고에서 한국화정점 사이 대표 남정복 ☎(062)226-5464	논두렁한우촌 안산동 두암타운입구 김소영빌딩 대표 조성주 ☎(062)267-3375	현대모터리인자동차공업사 현대모터리인자동차공업사 대표 남정복 ☎(062)525-3336